

# 국회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결의안 의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통해 처리 박광온 "정부·여당, 일본정부 상대로 할 일 해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제소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당초 이날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 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근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가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속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회의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다며 횃집 먹방을 한다"며 "횃집 먹방을 할 것이라면 후쿠시마 가서 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해남 출신의 민주당 박광

온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및 처리 비용 지원 등 7개 대일(對日) 요구 사항

#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기하는 특별법 발의

### 민주 65명·국힘 2명·무소속 2명 등 총 69명 김승남 "역사적 정통성 강화할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7일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 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년 23승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 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민병덕·이용빈·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69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회에는 김의원과 강훈식·김영진·김영호·민병덕·민병배·박성준·박영순·윤재갑·이용빈·위성곤·허종식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진수 기자

# 여야 '인사청문회' 격돌 예상

### 최대 격전지는 방통위원장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인사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 후반 공식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MB)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상황이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엔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는 현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야가 맞붙을 최대 격전지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에 대해 과거 '언론장악' 논란,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최대한 부각함으로써 그가 '부적격' 인사임을 입증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방송정책의 적임자'라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합의에 따라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으로 바뀐 것도 여당의 '엄호 전략'에 유리한 요인으로 보인다.

교체설이 유력한 산업부·통일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임으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 업무 역량 등을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당정, 학교당 냉방비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

균 전기요금에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천300억원을 사·도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가구에서 113만5천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4천만원에서 4만3천원

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대 보급하기로 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개가 대상이다.

전기 사용 절약을 위한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연합뉴스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종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정

DRUM DREAM

DRUM DREA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UM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